

이응재 총장 “AI 교육 확대...지역·산업 잇는 플랫폼 구축”

〈조선이공대학교〉

학생 중심 교육혁신·산학협력 강화 대학 혁신비전 제시 생명환경화공과 교수로 20년 재직하며 교육·연구 매진

조선이공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선임된 이응재 총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조선이공대학교는 이날 오전 교내 2호관 1층 조이미래홀에서 제13대 이응재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감동진 광주대학교 총장, 서석해 강동대학교 총장,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박명희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교직원, 학생,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월23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 제13대 총장으로 최종 임명됐으며, 이날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30년 5월31일까지 4년이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총장은 “대학의 새로운 비전으로 ‘함께하는 오늘, 준비하는 내일, 새로운 대학’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 혁신을 이끌

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역과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교수, 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소통 중심의 대학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교육혁신 전략으로 AI·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와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과감히 나서겠다”며 “취업지원과 진로설계 체계를 고도화해 학생 개인의 가능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과 지역 상생도 주요 과제로



이응재 조선이공대학교 제13대 총장이 1일 오전 11시 교내 2호관 1층 조이미래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조선이공대학교

꼽았다.

그는 “대학은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인무원려 난성대업(人無遠慮 難成大業)’을 인용

하며 중장기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멀리 내다보는 준비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없다”며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해 학생이 졸업하는 시대에 선택받는 대학,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대학, 산업현장이 먼저 찾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 교수로 약 20년간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또한 교무임학처장, 학생취업처장,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학과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한편 조선이공대학교는 최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사업,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 등에 선정되며 교육 경쟁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여수시, 국민 서포터즈 ‘섬프렌즈 2026’ 활동 공식 돌입

개막 100일 앞두고 SNS 활용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소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람회를 홍보할 국민 서포터즈 ‘섬프렌즈 2026’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온라인(Zoom)으로 ‘섬프렌즈 2026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섬박람회 개막 D-100이라는 상징적인 날을 맞아 여수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서포터즈들과 섬박람회를 향한 기대와 열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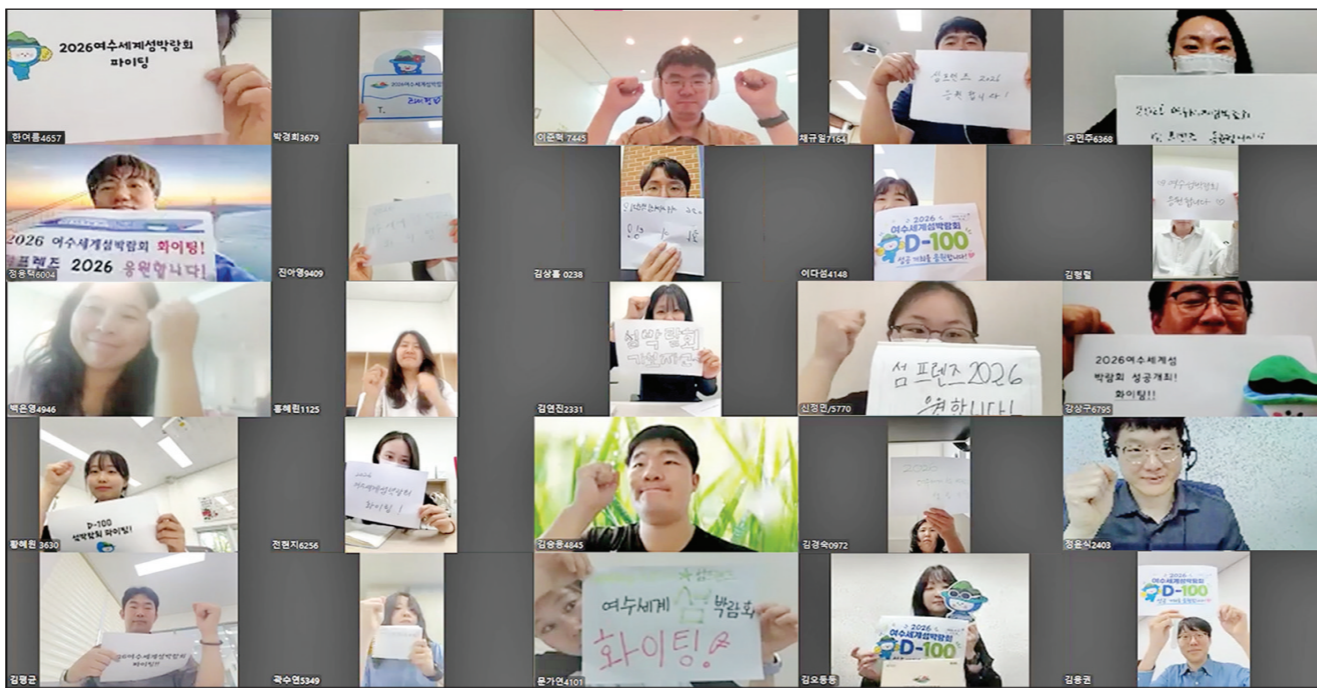
발대식은 시작 인사, 박람회 소개 및 추진 현황 공유, 섬프렌즈 운영 안내, 단체 기념 촬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D-100 구호를 함께 외치는 단체 영상 촬영이 진행되며 박람회를 향한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섬프렌즈 2026’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형 온라인 서포터즈 2026명을 모집해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 17일 개막 D-200일을 기점으로 모임을 시작한 이래 전국에서 2026명이 참여했다.

섬프렌즈 활동은 박람회 폐막일인 11월 4일까지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매월 제시되는 미션에 따라 여수와 섬·바다를 주제로 한 홍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우수 게시글은 박람회 공식 SNS 채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람회를 홍보할 국민 서포터즈 ‘섬프렌즈 2026’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며, 활동 참여자에게는 매일 리워드도 지급된다.

김중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D-100이라는 뜻깊은 날에 전국의 ‘섬프렌즈 2026’과 함께 박람회를 향한 출발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발대식을 기점으로 섬프렌즈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콘텐츠가 박람회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개막 100일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전방위 홍보 활동에 나섰다. 또한 D-100일을 기점으로 여수 전역에서는 다색이 캐릭터 램핑 버스과 섬박람회 깃발을 부착한 택시가 운행되며 박람회 분위기가 확산에 힘을 보탠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개막 100일을 앞두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전방위 홍보 활동에 나섰다. 또한 D-100일을 기점으로 여수 전역에서는 다색이 캐릭터 램핑 버스과 섬박람회 깃발을 부착한 택시가 운행되며 박람회 분위기가 확산에 힘을 보탠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과학관, 생성형 AI 활용 유튜브 숏츠 제작 40~70대 20명 참여...성인과학교실 2기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경우)은 최근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AI로 다시 배우는 성인 과학교실 2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분 영상의 마법(유튜브 쇼츠 만들기)’을 주제로 지난 5월 19일, 21일, 27일, 28일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지역 시민 20명이 참여했다. 특히 참여 연령층이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가운데 70대 참여자도 교육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인공지능(AI)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

가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ChatGPT)를 활용한 유튜브 숏츠 기획, 영상 제작 프로그램(Vrew)을 활용한 영상 제작, 영상 편집 프로그램(CapCut)을 활용한 영상 편집, 유튜브 숏츠 업로드 실습 등을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을 익혔다.

이번 교육은 모집 시작 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인 대상 인공지능(AI) 교육 수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립광주과학관 이정화 선임연구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들이 AI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AI로 다시 배우는 성인 과학교실 2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제공=국립광주과학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달 ‘AI로 다시 배우는 성인 과학교실 3기’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기 프로그램은 ‘AI 시작하기’를 주제로 AI 개념 이해, 프로그

라밍 등 생성형 AI 기초 활용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활용 프로그램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ChatGPT, Gemini, Grok)와 인공지능 음악 제작 서비스(Suno) 등이며,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는 1일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관광공사

광주관광공사, 윤리경영 실천 결의 청렴포스터 시상 조직문화 혁신 선도

광주관광공사(사장 정재영)는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행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고개 신뢰 제고, 적절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공사는 이날 사내 청렴포스터 디자인 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을 갖고 우

수작을 선정·시상하는 등 임직원들의 청렴활동 적극 동참을 격려했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관광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외부에 널리 공유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윤리경영 내재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정재영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윤리 의식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나주소방서 신속 대응...심정지 환자 소생

나주소방서(서장 신항식)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시민의 초기 대응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 팀 단위 응급 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1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3분께 ‘운동중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창119안전센터 구급대(소방교 방인호, 소방교 김지현, 소방사 고대현)는 상황 판단을 하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 순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심정지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후 즉시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산소공급 등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특히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초기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역할을 분담해 처치와



이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 신항식 서장은 “이번 사례는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판단과 정확한 처치, 동료간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